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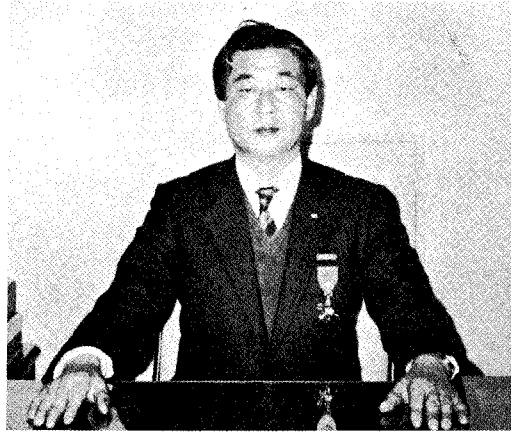
☐ 수상자 이상윤 회장을 만나서……

파  
판  
인

# 외길 양계인, 피와 땀의 결실로 산업훈장 받아

(양계산업발전에 공로 커 1월21일 수상)

취재 : 김용화 기자



▲ 이상윤 회장

#### 이상윤회장 약력

- 1961년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1962년 신기농장대표(현)
- 1967년 신기부화장 시설(현)
- 1968년 미국 하바드 원종농장 한국 총대리점(현)
- 1975년 대구 축협 이사
- 1977년 대한양계협회 경북지부장
- 1982년 대한양계협회 회장
- 1984년 대한부로이라 인수
- 1987년 대구북구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현)
- 현재 대한 양계협회 이사

파  
판  
인

戊辰年 새해의 시작과 함께 양계업계에 전해진 푸짐한 경사- 예로부터 상은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받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한다.

지난 1월21일 국가로부터 받은 산업훈장은 대상자인 이회장에게는 영광이요, 양계업계에는 양계업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되었음을 명명백백히 인정받는 날이기도 하였다.

이 자랑스러움을 길이 전 양계인들과 되새겨 보기 위해 훈훈한 커피잔을 놓고 본지가 이회장을 만나 독점 인터뷰를 하였다.

“축산업계에서는 산업훈장을 받은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계인으로서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며 수상소감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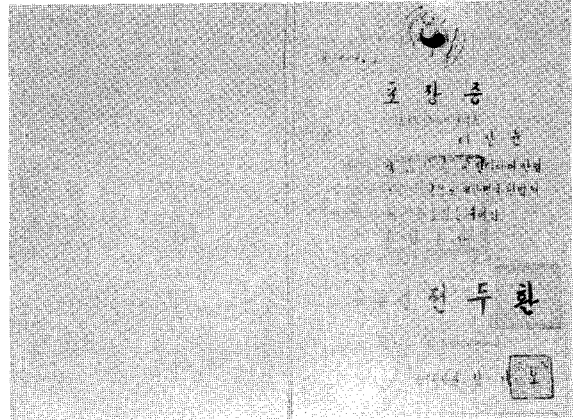
(결결 웃으시며) “솔찍이 제가 잘해서 받은 훈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배님과 모든 양계인들의 땀으로 이룩한 업적이 있었기에 국가에서 훈장을 내린 것이며 저는 다만 양계인을 대표해서 전달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심의를 맡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북 경신군 자인면이 고향인 이회장은 1938년생으로 6.25전인 1949년 부친께서 과수원용 퇴비증산을 위해 기르던 닭과 함께 하면서 1961년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뒤 본격적으로 전문양계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62년 5,000수 규모의 신기농장을 세우고 나서 1967년 미국하바드 원종계를 확보하여 전국의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는 종계장 3개소(평택 G.P.S 농장, 대구 P.S 농장2개소)34,000평, 계사 7,400평, 원종계 15,000~16,000수, 종계 15만수(대전포함), 규모로 우리나라 굴지의 종계농장으로 성장하여 매년 40~50만수(전국 육용계공급량의 약20%)의 종계를 공급하여 육계산업 기반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동물에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인이나 종업원을 막론하고 서로가 자기농장이란 공동의식을 가지고 닭 한마리, 종란 1개에도 세심한 정성을 쏟아야만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져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음 같이 수입개방압력이 농축산물 전 품목에 걸



쳐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시기에 양계관련인들이 생각해야 할 내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필수요건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부로이라를 경영하고 계신데 항간에서는 적자운영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닭고기의 위생적인 도계처리 공급은 애시당초 정부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1984년 2월에 대한부로이(도계장)를 인수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계속 적자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소문아닌 진실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지요. 손해를 보면서도 운영을 하는 것은 닭고기의 위생처리 공급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1일 15,000~20,000수의 위생계육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값받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중간상인이 유통을 담당하게 되면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계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위생적인 도계육을 통해서 국민보건향상에도 앞장을 설 수가 있어서입니다.

특히 지난번 '86아시안 게임과 금년에 치러지게될 올림픽 같은 행사때 세계인 앞에 비위생적인 양계산물을 보게 한다면 문화국민으로서의 수치심도 있지만 장차 우리나라가 수출국이 되었을 때 수출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회장께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다. (뵈, 자랑하는 것 같아서... 같이 웃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 대한부로이(도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내가 생산한 생산물이 나와 가족의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상품생산에 전념했으면 한다고 했다.

앞으로 종업원의 공공복리를 위해 복지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도 강조했다.

이회장은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하여 양계인 스스로가 일치단결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대한양계협회 설립 초기부터 선구자적 입장에서 헌신봉사하여 전국 양계인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1977년 이사를 거쳐 1980년12월부터 1986년2월까지 협회장의 중책을 맡아 여러양계업자와 더불어 선진외국을 여러 차례 시찰하고, 육계의 계열화 생산 및 계란 G.P센타의 설치를 유도했으며, 계군혈청검사 사업실시 질병예방대책수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축사에 대한 등록업체의무소독실시 제도의 개선, 홍보사업전개, 닭 경제능력검정소 이전 신축, 양계업 조세감면 연장 등 수없이 많은 공적이 양계업계에 남아있어 이번 산업훈장 포상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느끼게 한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양계산업역사와 이회장의 인간 역사는 동일선상에서 같은 맥락을 타고 흘러왔다고도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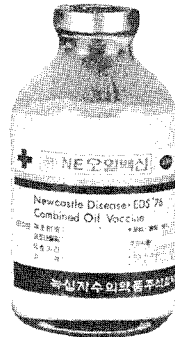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양계인들이 긴장하고 있는 수입개방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내산업이 경쟁력이 있을 때까지 수입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힘책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축산업도 보호 그늘에서 뛰쳐나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점은 양계인들이 모두 모여서 단합된 의지로 소리높여 개선하고 내부(농장안)에서는 생산비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금도 난립되어 있는 단체들이 통일단합하여 양계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치면 수입개방보다 더 험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대면때의 "내가, 뭐 한일이 있나 답밖에 모르는데" 라는 말대로 답을 알기 때문에 양계업을 이어왔고 양계산업발전을 위해 묵묵히 열과 정성을 다해오지 않으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산업훈장이 더욱 빛나고 값지게 보였다. **양계**

국내최초로  
오일백신 개발에  
성공!

자  
매  
품  
ND 오일백신  
EDS 오일백신

ND · EDS  
혼합오일백신



NE 오일백신은

1. 면역이 잘되고
2. 면역이 오래 지속되며
3.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NE 오일백신은

500수분 (250ml)에  
₩ 38,000입니다.

NE 오일백신

**+**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 수원 3423/4